

미술 공부하고 재능 기부하는

gma
광주시립미술관

알림이 뜬다



지난 27일 광주시립미술관이 개최한 '재미있는 전시작품 설명회'에 초청된 미술관 애호가들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이별이 너무 길다/슬픔이 너무 깊다/선재로 기다리기에 세월이 너무 길다”(직녀에게)

지난 27일 오후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 제1전시실,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에 출품된 최요안 작가의 회화작품 '분노하리' 앞에서 노래 '직녀에게'가 울려 퍼졌다. 국가지배구조에 대한 저항을 표현한 그림과 본인의 아픔을 묘사한 고(故) 문병란 시인의 시는 하모니를 이루며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줬다.

노래를 부른 사람은 은행에서 근무하는 박원씨다. 취미 활동으로 성악공부를 한 박씨는 이날 시립미술관이 개최한 '재미있는 전시작품 설명회'에 특별히 초청을 받았다. 그동안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 때마다 미술관을 방문하며 관계자들에게 '미술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눈도장이 찍혔다.

미술관은 올해 첫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기존에 진행했던 작품 설명회, 음악회 등 일방적인 행사에서 탈피했다. 미술관 애호가들을 초청,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재능기부도 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특히 미술관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홍보보다는 미술관에 관심을 가지고 주위에 적극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준비했다. 입소문, SNS, 블로그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미술관을 알리겠다는 의도다. 이날 모인 사람들을 바탕으로 SNS 등에서 활발할 '미술관 서포터즈'(가칭)도 구성할 계획이다.

이날 초청 받은 사람들은 박씨 이외에도 미술작가, 교수, 대학생, 언론인, 문화해설사 등 15명이다. 우연히 미술관을 방문했거나 언론보도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일반 관람객 10여명도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기쁨+사랑×행복÷' 안에 원승이 작품을 출품한 조진호 관장과 '2015빛'전에서 '맛있는 산수'를 선보인 하루K 작가의 작품설명으로 시작됐다. 참석자들은 중간중간 이동을 하며 작품을 감상했고 한사람씩 앞으로 나와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다. 박씨처럼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김용근 동광대 도서관장은 시를 읊고 작품에 대한 개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미술관에서 설명을 듣기만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말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는 반응이었다.

이날 미술관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행사에 참여하게 된 이정래(58)씨는 "근무가 빨리 끝나는 날에는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중 집과 가까운 시립미술관을 자주 들리고 있다"며 "예전에는 혼자만 왔다가 가곤 했는데 오늘처럼 미술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니 작품 감상이 더 즐겁다"고 말했다.

이씨는 미술관이 미술관 서포터즈를 구성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진호 관장은 "이르면 본격적으로 전시가 시작되는 2월 중 '미술관 서포터즈'를 구성할 예정이다"며 "서포터즈는 향후 교육을 거쳐 SNS, 블로그 등에서 활동하게 되며 미술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062-613-714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미술관 애호가 초청 구성 논의

내달 중 '시민 서포터즈' 발족

교육 거쳐 SNS·블로그 활동



광주시립미술관 전경.

국립남도국악원 국악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연수

국립남도국악원(원장 정상일)은 오는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동안 2016 동계 국악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는 예비교사들의 국악교육 교수 능력 향상을 위한 집중 교육 프로그램이다. 연수 내용은 교과서에 수록된 경기민요, 단소, 장구 반주법 등 실기과목과

국악 기초이론 등 이론 과목을 아우른다. 또 윤립산방, 신비의 바닷길 등남도 지역 문화 유적지를 돌아보는 시간도 갖는다.

음악교육과 재학생은 누구든 신청 가능하며 2월3일까지 국립남도국악원 홈페이지(www.namdo.go.kr)를 통해 선착순 접수 받는다. 문의 061-540-4036, 40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민속박물관 31일까지 '입춘방' 써주기

광주시립민속박물관(관장 주인택)이 새해를 맞아 '2016년 복을 부르는 입춘방 나눔' 행사를 3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는 입춘방을 써주고, 광주 행정·문화기관에도 게시용 입춘방을 배포할 예정이다.

지립 이집속, 신암 박우중, 녹천 이옥

자, 청사 김경주 선생 등 지역 중견 서예작가 4인이 참여한다.

시민들은 박물관 현관 로비에서 원하는 문구를 택하면 서예가들이 현장에서 바로 쓴 입춘방을 무료로 받아갈 수 있다.

문의 062-613-536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전남도립국악단 30일 토요일 공연 '고전의 향기 II' 살풀이·설장구·판소리... 정통 국악 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목포 남도소리 울림터에서 '토요 공연'을 열고 있는 전남도립국악단(상임지휘자 유장영)이 오는 30일 '고전의 향기 II'를 선보인다.

창작 음악과 퓨전 국악 등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있는 국악단이 이번 공연에는 작품들은 우리 음악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정통 국악 작품들이다.

레퍼토리는 한강독류 거문고 산조(문미라), 전통무용 '살풀이'(홍리이) 원장

현류 대규 산조(윤암현), 판소리 '춘향가' 중 '신년 맞이' 대목(최윤석), 김죽파 류 거문고 산조(정선옥), 궁중 무용의 진수 '태평무'(이다정), 흥겨운 설장구(오영기) 등이다.

티켓 가격 일반 1만원, 단체·대학생 7000원, 초·중고생,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5000원이며, 티켓링크(1588-7890)에서 예약 가능하다. 문의 061-285-6928. /김미은기자 mekim@

광주문화재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단체 모집

광주문화재단이 초·중·고등학생들의 문화예술 체험교육을 담당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단체를 모집한다.

올해 지원금은 지난해보다 2배 증가된 6억7500만원이다.

기획공모는 ▲테마제시형 ▲공간 및 거점제시형 ▲일상생활권 등 5개 단체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며 최대 3500만원을 지원한다. 일반공모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토요 프로그램을 자유 주제로 기획하면 된다. 30개 단

체 내외로 선정하며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한다.

공모 신청자격은 광주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이 가능한 기관·단체다. 2월15~16일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소담방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설명회는 2월3일 오후 2시 빛고을 아트스페이스 5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문의 062-670-5761.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여성재단 '여성, 세상과 통하는 길' 7호 발간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소식지 '여성, 세상과 통하는 길' 제 7호가 나왔다.

이번 호 특징으로는 '광주여성재단 중장기(2026~2020) 발전 계획 수립 및 비전 선포', '광주지역 성평등 수준 분석', '다문화정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실었다. 또 올해 광주시의 여성 정책 내용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활동상, 2016년 달라지는 여성·가족 관련 제도들도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밖에 전문가 칼럼으로 '양성평등기본법과 지역 여성 정책'(차선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청년여성, 우리

모두는 나비를 품고 있다'(송영은 공공미술 프리즘 프로젝트 매니저)를 실었다.

광주여성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 YWCA, 광주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 등 여성 관련 단체들의 활동상도 담았다. 문의 062-670-05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http://www.hankooktea.co.kr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감농 Set

다담 Set

우전감로

감사 Set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各種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3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人の 차만 남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인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식품명인지정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품문의 한국제다 본사 062-222-3973 | 차생원 본점 062-232-3973 | 광주 차생원 062-224-2902 | 광주 신세계점 | 광주 롯데점 062-221-1037 | 부산 차생원 051-7007~8